

코로나 피해 전국민·피해업종 선별 동시 지원 검토

민주, 내수소비 활성화·자영업자 피해 직접 보상 차원 문제는 재원...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편적 급여나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이 가속하면서 양 주장의 장점을 살리자는 측면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 지원이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선별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라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외 상당수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위기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점,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한 점 등을 들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4·7 광역·기초의원 보선
순천·고흥·보성 8명 출사표
민주당 전남도당

오는 4월 7일 치러질 전남지역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1곳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모 결과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24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에 따르면 4·7 보궐선거 예비후보 공모 결과, 광역의원을 뽑는 순천 1선거구에 4명, 고흥 2선거구에 2명이 신청했다. 보성군의원(다선거구) 선거에는 2명이 신청했다.

전남도의원 선거구 2곳은 지방에 의한 사망으로, 보성군의원은 비리 혐의로 자격을 상실해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순천 1선거구에는 양동준 순천시 재향군인회장과 주윤식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 정병희 전 전남도의원, 장길태 순천만나눔재단 상임이사 등이 등록했다. 고흥 2선거구에는 유민식 전 18대 대선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후보 전남선대위 고흥 정책위원과 박선준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보성군의원 선거에는 조현남 전남도당 상무위원과 박정욱 전 보성군청 재무과 징수계장이 등록했다.

전남도당은 조만간 경선 등 일정을 확정하고 3월 초까지 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이상호 의원(왼쪽)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월 4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월 4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관리위는 전날 마감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4과 25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는 26일 발표한다. 예비경선 순위 기준은 미정이다.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은 부산 벡스코(28일)와 서울 백범기념관(29일)에서 합동 정견 발표회를 갖는다.

이어 내달 3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5일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4명의 본경선 진출자는 4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최종 후보는 3월 2~3일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판가름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복수의 기관이 진행하며, 결과치의 평균값으로 최종 성적이 정해진다.

/연합뉴스

공수처 검사 23명 공모 다음달 2~4일 원서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내달 2~4일이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전형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직 검사를 파견 받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욱 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끝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 뜻을 같이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친문 구애...민주, 서울시장 보선 경선 시동

박영선 "문재인 보유국" 이상호 "문 정부 성공"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다.

이상호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26일 출마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다.

경선 절차에도 시동이 걸린다. 민주당은 27일

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첫날인 27일에는 전국순회 정책엑스포가 서울에서 열려, 두 사람이 기조연설을 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면접 방법을 확정한다.

앞서 박 전 장관은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봉하마을 방문을 알리면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권

여사를 인터뷰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숭소리까지도 진술하고 질박했던 권 여사님. 그 진술함, 질박함이 승리의 이유라고 느꼈다"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우 의원은 이미 공약행보의 속도를 한껏 높인 상황이다. 출마 선언 후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환경 등을 7번에 걸쳐 정책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에 대한 구애가 뜨겁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

하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리프다"고 썼다.

우 의원은 전날 이낙연 대표, 박 전 장관과 남대문을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서 "출마 선언 후 42일째. 이제 드디어 혼자야 아니게 됐다"며 "장관직 수행에 고생 많으셨을 박영선 누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라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레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천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